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으로 이송된 23일 오후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돼도 실손보험 보장 안돼

코로나19 보험 보장 범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검사, 진료, 입원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지.

보장 여부는 감염 여부에 따라 갈린다. 확진자라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반면 검사결과가 '음성' 판정이라도 실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해 검사를 신청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음성' 판정엔 실비 가능하지만 자의로 검사 신청시 적용 안돼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실손보험 정도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인당 10만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용이 든다. 이때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감염 여부에 달렸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정부가 별도로 격리 치료를 하고 있고 입원비, 치료비를 100%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확진자 외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실손보험 보장이 안 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비, 치료비 전액 부담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때도 정부가 치료비 일체를 부담했다. 당시에도 실손보험 중복 보장은 불가능했다.

반면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 검사결과가 '음성' 판정이라도 실손의료보험으로 진료비, 입원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상품에 따라 책정된 자기 부담금 0~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받는 식이다. 다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해 검사를 신청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정부가 치료·진료비를 지원해주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있다. 입원비 특약 등에 가입한 경우다.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입원 일수당 정액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재해에 해당한다. 종신보험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해외여행 중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여행자보험 '해외실손 보장'을 통해 현지 진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치료비는 약 40%만 보장된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해외 현지 의료비의 40%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출·퇴근 또는 출장 등 업무 도중 감염 경로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사실 등 경로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입원비 특약, 사망보험금 가능 업무 중 감염 확인엔 산재 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거나, 노동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새로운 감염병이라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 특약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가입한 상품의 보장 범위, 한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문형철 기자의
국방 칼럼

軍 보급품은 안녕하신가?

중국발 '바이러스 충격'은 실로 파괴적이다. 최근현대자동차의 생산공장이 중국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겨 생산라인이 잠시 멈췄다. 때문에 중국제에 의존하는 우리 국군의 보급품들도 안녕하신지 궁금해 진다.

중국발 바이러스 충격이 우리안보의 위기와 맞물린다면, 국군의 보급품 일부도 중단될지 모른다.

피복, 장비, 식량 등 전력지원물자(보급품)는 무기와 달리 일상용품에 가깝다. 다만, 일상용품과 달리 군의 특수성에 맞춰 어떠한 조건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내는 신뢰성과 관리의 편리성, 강한 내구성,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조달의 안정성 등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국방부, 방위사업청, 조달청을 비롯 각 군은 '더 싸고 더 빠르게'라는 '한국형'을 밀어넣는다. 거기가 군납품 시장이 마치 경기특수를 만드는 시장인양 '물지마 입찰'을 조장한다. 생산업체일 필요도 없고,

구매해서 조달만 해주면 땀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최근 전력지원 물자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군납업체 이외 업체의 참가를 확대하고 권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군에서 나이키 신을 수 있다', '밖에서 먹던 치킨텐더 군에서 먹는다' 등의 귀엽고 재미난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보급품 관련 국내 업계의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처사다. 나이키 같은 해외 유명업체, 국내 굴지의 유명기업이 군납업체가 아니라서 못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더 싸게 빨리 아무나 납품하십시오'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다. 현실도 모르며 떠는 결과는 뻔하다. '나이키 대신 나이시다'

우리군이 사용하는 응급조치킷은 중국제다. 지난해 기자가 군 당국에 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 군당국은 이를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했다. 중국제 응급조치킷의 품질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위험하다. 최근 중국은 한국제 마스크는 사들이면서 자국산 마스크 원자재의 한국수출을 막았다. 만약 중국에서 더 큰 급변사태가 나거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

다면 중국이 응급조치킷을 신속히 제공해 줄까.

우리군의 특수부대가 구매조달한 '특수작전용 칼'도 중국산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가짜 5000개에 이어 올해도 5000개 추가 구매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중국제라서 문제가 아니다. 가짜임을 알고도, 심지어는 상표법을 어긴 것을 알고도 업체의 사정이라며 도입을 강행했다. 2018년 처음으로 정품 특수작전용 칼이 납품됐음에도, 그보다 못한 중국제 복제품을 사면서 군은 "우리는 합법하고 적법하다"고 말한다.

최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국산 제품의 공급제한, 재고 부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바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군의 보급품은 일상용품보다 더 민감하다. 중국제 저가, 또는 복제품에 의존하는 국군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괴멸이다. 군 수뇌부는 군의 미래를 위해, '국제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조달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captain@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다음달 6일까지 2주 간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한 2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내 제1병역판정검사장이 한산하다. /뉴스1

軍 병역검사도 올스톱 외출·외박·휴가 금지

병무청 신검 내달 6일까지 중단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 '13명'

군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돼 13명이 됐다. 군당국도 확산예방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24일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의 핵심 수뇌부가 모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각군 본부 등의 출장을 금지시키고, 군의 주요 보안 방호시설 등도 군간부의 출퇴근 및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3월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도 정상적으로 실시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에 맞춰 병무청은 이날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다. 병역판정검사 재개 시기와 관련해 병무청은 "매주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추후 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해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중단은 병역의무자에게 전화, 알람 톱 등으로 개별안내된다. 병역판정검사 연기대상자는 1만 6700여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동원예비군훈련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예비군인 비상근복무 간부에 비군(하사이상 중령이하)들의 소집 교육이 4월 이후로 연기됐다. 때문에 동원훈련등의 일정이 4월 이후로 다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군내 코로나 19 관련 격리인원은 7900여명으로, 군 당국은 지난 22일부터 전장병의 외출·외박, 휴가를 통제했다.

/문형철 기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현대차, 채용면접 연기

현대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신입사원 채용 면접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4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채용 면접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취한 후속 조치다. 현대차는 작년 상반기부터 대규모 신입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부분별 상시 공개 채용 방식으로 전환했다. 부서별로 자체 면접 일정을 잡아 본사 면접장에서 채용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식약처, 대구시·청도군에 마스크 100만개 긴급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100만개를 긴급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첫번째 공급 물량이 현지에도 도착한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보건용 마스크 221만개를 대구·경북지역에 공급 지원한 데 이어, 긴급히 예산과 물량을 확보해 직접 구매해 공급하게 됐다.

이번에 공급하는 마스크의 지급 대상·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